



2024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6년 연속 1위
엘리트



트렌디한 체육복과 다양한 교복 맞춤 용품 선보인 엘리트학생복

엘리트학생복은 1969년 제일모직의 학생복 브랜드 '에리트' 학생복지로 시작해 올해 55주년을 맞았다. 오랜 시간 축적해온 기술력과 노하우로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을 지닌 교복을 선보이며 국내 학생복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초’ 수식왕, 이번엔 체육복 전담팀 신설

엘리트학생복은 ‘최초’ 수식어를 다량 보유한 브랜드다. 국내 최초로 폴리에스테르-레이온 혼방 제품을 출시하고, 학생복 업계 최초로 전문 디자이너 디렉터를 영입하는 등 교복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체육복 전담팀을 꾸려 트렌디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제품을 선보였다.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의 취향을 적극 반영해 반집업 아노락 스타일의 티셔츠, 비대칭 배색으로 포인트를 준 티에리 셔츠, 야구점퍼 스타일의 체육복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일상복 못지않은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을 내놓았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복 맞춤형 용품을 확대해 선보이기도 했다. 촉감이 부드럽고 통기성이 뛰어난 이너 티셔츠, 학생들의 체형을 고려한 타이즈와 스타킹, 신축성을 높인 속바지, 형지 에스콰이어와의 협업으로 품질과 디자인을 강화한 벨트 등을 출시했다.

ESG, 해외 진출에도 힘쓰는 엘리트학생복

학생들의 변화하는 체형에 맞춰 디자인과 패턴도 업그레이드했다. 품목별 호칭에 맞는 사이즈 스펙을 검토해 패턴을 전면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ESG 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친환경 소재의 제품도 개발했다. 2021년에는 업계 최초로 투명 페페트병에서 추출한 원사를 사용해 ‘리사이클링 쿨스판 바지’를 출시했으며, 친환경 리사이클 섬유 ‘리젠’도 적극 활용한다. 국내 교복 시장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로도 눈을 돌려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차별화된 소재와 제품 경쟁력을 앞세워 프리미엄 교복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실제 지난 3월 ‘2024 상해 패션위크’ 키즈 패션위크에 교복 브랜드로는 단독으로 참여해 현지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엘리트는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INTERVIEW



최준호 (주)형지엘리트 부회장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6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안게 되어 영광입니다. 매년 10만여 명의 전문가와 소비자 평가단이 참여해 엄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선정하는 상이라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엘리트학생복은 언제나 한발 앞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업계 흐름을 주도해왔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재 도입과 디자인 혁신을 위해 고민하면서 품질 좋은 교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변화하는 학생들의 체형에 맞춰 패턴을 업그레이드하고 일상복으로 입어도 손색없는 트렌디한 스타일의 체육복을 내놓기도 했으며 다양한 교복 맞춤 용품을 출시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